

해외 부품소재정보시스템 구축



올 연말까지 일본·독일 등 해외 선진부품소재 기업의 투자계획, 비즈니스 관계 등 핵심 정보를 체계적으로 조사·수집하여 선진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에 활용할 계획이다.

추진 배경으로는 그동안 정부와 기업, 지자체, KOTRA 무역관 등 투자유치 기관들은 해외 부품소재기업을 국내에 유치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업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유치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와 관련, 투자유치 대상이 되는 해외 부품소재기업 리스트와 상세정보를 확보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지식경제부는 「해외 부품소재기업 투자유치 정보시스템(이하 'OASIS')」을 구축하여 관련 정보를 지자체와 기업 등에 제공하여 효과적으로 해외 부품소재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외 부품소재기업 투자유치 정보시스템(OASIS)이란 Overseas Advanced parts & materials companies Search service and Information System이다.

사업 필요성으로 우리나라 부품소재산업은 지난 2001년 '부품소재특별법' 제정 이후 정부와 기업의

경쟁력 제고 노력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

지난해의 경우, 부품소재 무역수지는 사상 최대치인 513억불의 흑자를 기록하는 등 전체 무역수지 흑자를 견인하였다. 부품소재 무역흑자(억불)는 27(01) → 62(03) → 227(05) → 364(07) → 513(09)이다.

그러나, 세계적인 부품소재 강국인 일본·독일과는 여전히 부품소재 분야에서 무역역조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품소재 무역적자(억불)는 일본에 대해 $\Delta 187(07) \rightarrow \Delta 209(08) \rightarrow \Delta 201(09)$ 이고, 독일에 대해 $\Delta 37(07) \rightarrow \Delta 52(08) \rightarrow \Delta 38(09)$ 이다.

따라서, 국내 부품소재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對日·對獨 부품소재 무역역조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들 국가의 첨단 부품소재기업을 국내에 직접 유치할 필요성이 있으며, 정부가 이번에 구축하고자 하는 '오아시스(OASIS)'는 이러한 투자유치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오아시스(OASIS)는 사막에서 길을 잃은 방랑자들에게 생명의 물을 제공하듯이 투자유치 대상기업을 찾지 못해 헤매는 투자유치 기관들에게 맞춤형 투자

【 예) 태양전지분야 DB설계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주요업체명
태양전지	Cell	Silver Paste Screen Ammonia	Herasus Holding GmbH Cocncn Solar Screens GmbH Linde AG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사업 개요로 OASIS사업은 일본, 독일 등 부품소재 선진국 기업 중 투자여력이 있는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대일역조 100대 품목 등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투자유치활동에 유용한 기업 정보(1,000개 이상)를 구축할 계획이다.

동 사업은 부품소재분야 전문기관인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가 주관이 되어 추진하며, 일본기업 정보수집은 ‘노무라종합연구소’에서, 독일기업 정보수집은 ‘한독상공회의소-디스플레이뱅크 컨소시엄’이 맡아 추진한다.

또한, 자료를 대분류/중분류/소분류/업체명 순서로 분류하여 효과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OASIS의 기업정보는 부품소재전용공단 홈페이지(www.pmcomplex.go.kr)를 통해 지자체 등 투자유치 유관기관에 제공된다. OASIS가 제공하는 주요정보로 해당기업 일반 정보는 기업명, 대표이사, 주소, 종업원 수 등이고, 재무현황은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자산총계, 부채총계 (최근 2년)이다.

국내외 진출 현황 및 한국과의 비즈니스관계, 한국 지역을 포함한 해외 투자계획 및 기술제휴, 대외협력 수요 등이다. 향후에도 투자유치 유망기업에 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해당 기업에 대한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한다. 기업 투자계획 및 기

술력 등(연 2회), 일반정보 및 재무정보(연 1회) 등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한다.

지자체 등 투자유치기관들이 투자유치 활동과정에서 수집한 정보도 시스템에 수시로 업데이트함으로써 활용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기대 효과로 지식경제부는 OASIS를 통해 지자체, KOTRA 등 투자유치 유관기관에게 해외 부품소재 기업에 대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경우 투자유치 활동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게 되고 투자유치 성과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해외 선진 부품소재기업을 전문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조성중인 부품소재 전용공단의 조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품소재 전용공단 지정 현황은 구미, 포항, 익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이다.

